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지원

전북교육청, 5세 대상 20만5000원 지원→3월부터 4세까지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를 확대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유아 5세를 대상으로 한 월 20만5000원의 무상교육비 지원을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 4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은 공·사립 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정책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까지 3~5세

유아에게 월 16만5000원씩 지원하다 7월부터 5세에 한해 4만 원(24%) 인상된 20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해 3월부터 4세 유아에게도 20만5000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6년에 4세가 되는 3000여 명을 포함해 4~5세 총 6400여 명의 유아에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교육청은 2027년에 3세까지 지

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공·사립 유아 간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효율 높일 기술 개발 주목

전북대 아만프리트 카우르 박사후연구원, 국제학술대회서 '우수발표상' 수상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전북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해 국제 학술대회에서 주목받았다.



전북대 아만프리트 카우르(Amanpreet Kaur) 연구원(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 지도교수 임준우)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주목받고 있는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VRFB)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구조의 분리판 제작 연구를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8회 첨단 복합재료 국제학술대회(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ICACM 2025)'에서 발표해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 전극과 분리판을 하나로 통합한 혁신적 설계를 통해 에너지 효율과 장기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린 이번 연구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VRFB는 높은 안전성과 무한에 가까운 저장 용량, 우수한 효율성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스택 내부 구성 요소 간 접촉 저항으로 인한 성능 저하와 사이클링 불안정성이 상업화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단일 탄소 펠트(carbon felt, CF)를 활용해 전극과 분리판을 일체화한 새로운 구조를 개발했다. 이는 스택 내 계면 접촉 저항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셀 저항을 크게 낮추고, 전체 스택 성능을 향상시키는 혁신적 해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에너지 효율 향상은 물론 부품 수 감소와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해 VRFB의 장기 안정성을 크게 개선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VRFB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 결과는 에너지 저장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Journal of Power Sources에 'Electrode-integrated bipolar plate structure for multi-cells in vanadium redox flow batteries'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아만프리트 카우르 박사후연구원은 "VRFB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복합재료와 구조를 구현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며 "뜻깊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임준우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관 프로그램과 구원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김재훈 기자

이러한 비전을 수립하고 '태권도 공공 가치 창출', '글로벌 협력 체인망 구축', '고품격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달려온 결과 34만 명 넘게 태권도원을 대거가며 태권도원 역대 최다 방문객 기록을 달성했다. 이와 더불어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등이 참가한 '세계태권도그랑프리챌린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국가협회 품새 심판 워크숍과 난민 태권도 선수 초청 연수, 세계 파다 태권도 훈련 캠프 등 태권도원이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했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2025년 최선을 다해 준 재단 및 사회사 임직원들과 태권도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태권도 보급과 보존, 국제 교류 및 협력, 관광과 K-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 및 태권도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태권도 공공가치를 창출하고 태권도 문화를 확산해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군, 운곡저수지 이주민 구술 기록집 발간

고창군과 고창군생태관광주민사회적협동조합이 운곡저수지 이주민들의 삶과 기억을 담은 구술 기록집 '운곡을 기억하다, 기록하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집은 1980년대 초 영광원자력발전소 냉각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조성으로 수몰된 용계, 용암, 신촌, 오암, 지소 등 9개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당시 158세대 360여 명의 주민들은 평생 일궈온 문헌기록을 뒤로한 채 뿔뿔이 흩어졌으며, 주민들이 떠난 자리는 현재 '운곡람사르습



지'라는 세계적인 생태관광지가 됐다. 책의 중심에는 현재 80대가 된 박영수, 조정임, 박점례 할머니 세 분의 삶이 자리하고 있다. 약 9개월간 이야기 작가들과 함께 30여 차례에 걸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몰 전 마을의 역사

부터 시집살이의 고단함, 자녀 교육, 그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주의 슬픔을 생생한 전라도 사투리와 목소리로 풀어냈다. 특히 이번 기록집은 운곡습지 일대만의 차별화된 산업이었던 '한지(백지) 문화'를 구체적으로 복원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베이콜'의 맑은 물과 풍부한 단나무 덕분에 당시 마을에는 여러 개의 한지공장이 운영되었으며, 이는 인근 지역과 구분되는 운곡만의 독특한 생업이자 공동체 문화였다. 할머니들은 단나무 껍질을 벗기던 고된 노동과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하며 종이를 뜬던 풍경을 세밀하게 증언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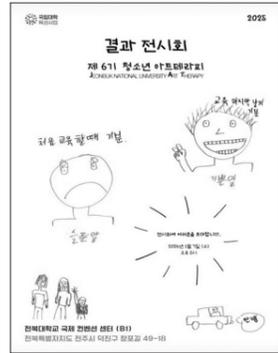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마주하는 마음의 틈새, 예술로 메운 값진 시간들'

기소유에 청소년 맞춤형 미술치유 프로그램 결과 전시

제6기 전북대학교 청소년 아트테라피 J.A.T(Jeonbuk National University Art Therapy)가 기소유에 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의 결과를 공유하는 전시회를 연다. 이번 프로그램은 불안정한 청소년기에 한 순간의 일탈을 처벌이나 낙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기보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정서적 상처와 회복 가능성에 주목하며 예술을 매개로 한 자기 성찰과 성장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주하는 마음의 틈새: 예술로 메운 시간'이라는 주제로 약 3개월간 운영되었으며, 겨울을 깨는 행위와 겨울 가면 제작으로 시작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비롯해, 내면의 감정을 형상화하는 조형 활동, 말풍선·자화상·휴 조형 등 다양한 입체 창작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내면을 안전하게 외



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손으로 만지고, 자르고, 붙이고, 쌓는 조형 활동은 언어로 본인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정서 표현의 수단으로 작용했으며, 완성된 입체 작품은 자기 존재감과 성취감

을 강화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또한 9차시에는 1차시에 제작한 겨울 가면을 착용하고 스스로와 대화하는 '겨울 인터뷰'를 진행하여, 참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 상태와 과거의 선택을 직면하고 미래의 변화를 모색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은 단순한 창작 활동을 넘어, 예술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삶의 태도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능했다. 본 프로그램은 또래와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전시회라는 공격 발표의 장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자기 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6기 청소년 아트테라피 결과 전시회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이고, 오픈식은 2026년 1월 7일 오후 5시 전북대학교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종무식 갖고 성과 공유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지난달 31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종무식은 업무유공자 표창과 임직원 간 송년 인사 등의 순으로 진

행된 가운데 올해 거둔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5년은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세계와의 소통을 통한 지속 가능한 태권도 문화의 미래 거점'



태권도진흥재단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지난달 31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개최했다.

전북교육청, 유치원 현장체험학습에 외부 보조인력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부터 유치원 현장체험학습에 외부 보조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유아의 안전 보장과 교직원의 인솔 부담 경감이 외부 보조인력 투입의 목적이다.

전북교육청은 외부 보조인력 투입으로 유치원 현장체험학습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교직원은 유아 지도와 교육 활동에 집중하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8월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길라잡이'를 제작해 현장에 안내했다. 이에 앞서 현장체험학습 외부 보조인력 투입 대상에 초·중·고등학교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북교육청 학생안전 관리지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전북자치도의회를 통과했다. /김재훈 기자